



먼지를 털고 때를 닦아라 <하> 최순옥 (경북 구미시)

오랫동안 청소부가 없어서 제대로 청소를 하지 않아서인지 스무 개가 넘는 화장실은 썩어있는 듯 했고, 오물 따위들을 치울 때에는 고약한 냄새는 며칠씩 코끝에 남아 영거북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나 오물은 음식물의 변형일 뿐인데 왜 그리 언짢아하는가!

이 세상 모든 것은 윤회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음식물일 때는 좋고 사람을 살게 해주느라 똥이 되면 왜 더럽다고 생각하나. 이런 분별은 내 마음의 간사한 작용일 뿐이다.

나는 주리반복을 생각한다. 주리반복은 바보일 뿐 나처럼 영혼의 때는 없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도 부처님께서 '먼지를 털고 때를 닦아라' 하셨거늘 나 같은 사람이야...

나는 <금강경>을 독송할 때마다 참회의 뜨거운 눈물을 흘릴 때가 많다. 그것은 내가 밤낮으로 분별만 하고 살았기 때문이다. 나 만큼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에 그리도 많이 분별하고 집착한 사람이 있었을까? 그러나 주인공이 나를 이리도 데리고 와서 청소를 시키는 것이 아닐까?

빗자루로 쓸고 나면 일처로 깨끗해지고 물 걸레로 닦고 나면 환해진다. 그 위에 마른걸레질까지 하고 나면 유리마냥 투명해진 이틀다운 검은 대리석은 본래의 빛을 띠고 그곳에 내 얼굴이 비친다. 나까지 깨끗해지는 것 같다.

난생 처음 하는 회사생활이 나는 즐겁다. 내가 하는 일이라 가장 밀착하고 더러움을 씻는 천한 것이라 하나 그것도 생각하기 나름이다. 힘은 들어도 머리 아픈 일도 직장에서 오는 고민도 없다. 일할 때 나하고 얘기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소리없는 열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행선도 할 수 있다.

나는 하루 종일 주인공과 얘기를 나눈다. 피리에 피리를 물고 나오는 생각들은 주로 망상일지만 주인공과 의논한다.

'방금 그 생각은 중생이라 한 것이다' 라고 내가 변호하면 '너를 합리화시키지 마라'고



그림 · 김홍인

화장실 청소하며 분별심 버려 매순간 마음관찰, 개인 삶 추구

주각 주인공은 꾸준하다. 맞아. 주인공 하면 그게 네가 주인공이라 부르는 나는 바로 너다. 또 대답하는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화장실 거울을 닦으며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보고 묻는다. 여기 와서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모른다. 도저히 모른다. 하나 한 가지 사실만은 안다. 나는 스스로가 아주 좋게 살았다고 생각하고 매 잡았다는 기분에 빠져서 마음속에 오만이

가득 들어있는 사람이란 것만은 안다. 그래서 너가 주인공이라 부르는 나는 바로 너다. 또 대답하는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나는 나의 삶을 순간순간의 마음을 철저히 관찰하는 것으로 한다. 방금 내가 한 말은 발립 말이 아니었나? 또 지금하고 있는 이 생각은 죄를 짓는 것이다. 왜 죄짓는 생각을 하는가? 하며 일련 생각을 바꾼다. 매 순간을 깨어 있으려면 이 방법 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매불망 공부 못 시킬까 전전긍긍하던 아들 공부도 3년 전에 끝났고 모두 결혼까지 하였다. 아들들 공부할 때, 대행 스님의 말씀 가운데 '되고 안되고를 몽땅 놓아라'고 하시던 말씀이 내게는 풀길 없는 화두였다. '내가 들고 내가 해야 되는데 놓으면 어쩌란 말씀인가?'

그 말씀을 푸는데 얼마나 미련했으면 나는 5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나는 그냥 묵묵히 일만 하고 결과는 주인공에게 맡기며 되는 이렇게 간단하고도 간단한 것을 왜 그리도 무겁게 안고 고민하며 핑곗말을 지어...

이제 나는 모든 것을 주인공에게 맡기며 살고 있다. 스님 말씀처럼 뿌리가 제 나무를 죽일 리가 없다고 하는 불변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 나이 우리나라로 예순 하나. 이순(伊順)이다. 글자를 가만히 들어다본다. 귀에 순할 순 아마도 이 나이가 되면 귀로 듣는 모든 소리를 순하게 들어라는 뜻인 것 같다. 그런데 왜 이 나이에 하필이면 귀로 들려오는 소리들을 순하게 들어야 할까?

사람이 육십 년 이상 산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야집도 그만큼 오랜 세월 단단하게 고쳐 지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잘 살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경계의 표지가 생겼을 것이다.

나는 평생을 일하며 살았고 화려하고 대우 받는 자리에 가본 적이 없다. 그렇지만 복은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감격해 마지않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났고 그 분의 말씀을 언제나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이상 무슨 복을 더 바라리.

오늘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아닌더, 너 자신이 너의 등불임을 알라. 너 자신이 너의 안식처임을 알라. 너 자신이 외에 다른 안식처를 찾지 마라. 등불인 진리를 단단히 불타라. 안식처인 진리에 굳건히 안주하라. 너 자신 이외에 어느 누구에게서라도 안식을 구하지 마라.' (골)



서용 스님께서서는 소식(小食)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일상에 매이는 일도 없이 자유자재하시면서도 남치거나 모자람이 없는 경지를 보이셨다. 마치 칸트처럼 매일 한 시간 정도 산책을 하셨는데, 내가 출가를 두고 고민을 하자 하루는 매일 가던 길이 아닌 인적이 드문 외진 길로 산책을 가시는 것이 아닌가. 나중에 생각하니, 출가란 남이 가지 않는 길을 홀로 가는 것이라는 무언의 가르침을 행동으로 보여 주신 것 같다.

자비하신 스님, 제계 정광명(淨光明)이란 법명과 함께 세계일화, 자비무궁, 수처자주, 오역문화라는 글씨도 내려 주셨는데, 항상 잊지 않으려고 마음에 새기곤 한다. 또 집에 불상을 모시고 싶다고 했더니 집안도 해주셨다.

그 전날 나는 꿈을 꾸었는데, 무수한 스님들이 내게로 향해 행진해 오는 꿈을 꾸었다. 스님께 말씀드렸더니 불보살님이 출현하신 것이라고 하셨다. 그 이후로 나는 아침마다 불상에 청정수



권경임 종교사회복지포럼 회장

이나 자신의 본분사를 망각하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출가를 하지 않는 한 갈등할 수밖에 없다.

특히 선수행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현실과 괴리되거나 착각을 하면서 깨달음의 현상이라고 고집하는 수가 간혹 있다. 수행과 일상, 현실의 삶을 병행하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내가 겪었던 불교

예불로 일과시작 육바라밀 실천 노력 편양선사 자비행 귀감 삼아 복지공부

와 향을 피우고 삼귀의, 반야심경, 발원문, 사후서원으로 아침예불을 올리며 하루를 시작한다.

참선수행을 하다보면 경전 보는 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데, 그것은 문자에 집착하고 분별하다 보면 수행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경계하기 위해서인 것 같다. 나중에 불교공부를 하다보니 경전의 소중함을 새삼 알 것 같다.

그리고 보면 편양선사 선사는 책에서 만난 스승이라고 할 수 있겠다. <양치는 성자>에서 편양 선사는 오대산 적멸보궁에서 처음 오도를 하신 후 경전을 체계적으로 공부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깨달은 후에 경전 공부보다 진짜 공부라고 하던데, 나의 경우는 경전이 수행에 나침반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보인하는 동안 결연으로 사시면서 어린이, 노인, 무의탁자나 임진왜란때 다친 부상자들을 돌봐주신 행적은 불교복지를 하는 나에게 귀감이 되어주고 있다.

어떤 수행법이든 수행의 목적은 탐·진·치 삼독을 제거하고 본래의 진실한 자기를 회복하는데 있다. 수행을 삶과 분리해서 생각하다보면 살아 가는 일에 소홀하게 된다. 그러나 생활

공부와 수행법을 바탕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삶으로 구현해 내는 방법을 생각해 보니 '육바라밀' 수행인 것 같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바이지만 이 수행법의 중요함을 간과하고 있다.

육바라밀은 출가와 재가를 아우르는 보살의 수행법인데, 옹수 대사는 <보리자랑문>에서 육바라밀을 복덕지혜 이 중자랑의 깨달음을 이루는 필수불가결한 수행이며, 자리와 이타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수행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것을 불교사회복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근간으로도 삼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왜냐하면 불교에서 추구하는 것은 본질적인 자아이고 사회화에서 추구하는 것은 이러한 자아의 사회적 실현이라고 한다면, 본질적인 자아가 실현되는 사회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사회이고 복지사회의 실현일 것이다.

지금 나의 삶을 되돌아보니 방대한 불교의 가르침과 수행을 맛보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살아가면서 경제에 부딪힐 때마다 그 경계를 하나하나 극복해 가는 것도 수행이고 보면 살 자체가 수행의 과정일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신행수기 잘 쓰려면 ③

주제와 소재 직접 체험한 이야기 명료하게 전개해야

●주제는 글의 중심사상 주제란 글이 담고 있는 중심사상을 말한다. 중심사상이란 글 작자의 인생관 내지는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가 선명할수록 명료한 문장이 되는 것은 자명하다. 왜냐하면 주제는 그 글의 핵심적 사상으로 생각의 초점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글에 초점이 없다면 그 글은 산만해져 통일된 사상을 오롯이 전달할 수가 없게 된다. 주제를 고를 때에는 작가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 중 자신의 능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자신의 역량에 맞는 것을 골라야 무리가 없다. 되도록 관념적인 주제는 피

하는 것이 좋고, 주제는 되도록 한정되어야 하며 주제를 위해서 동원되는 소재의 선택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소재는 글의 재료 소재라고 하는 것은 그 작품의 주제를 위해 동원되는 재료를 말한다. 가령 비행기 추락사고로 탑승객 전원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자. A라는 사람이 그날 아침에 신선한 북풍으로 병원에 갔다가 비행기를 놓치고 말았다. 이때 '운명'이라는 주제로 글을 쓴다면 주제는 '운명'이 되고 '비행기 추락사고'는 소재가 될 것이다. 하나 똑같은 '운

명'이라는 주제를 갖고 여러 사람이 글을 썼을 때, 선택되어지는 소재가 제각기 다른 것은 작자의 인생관 내지는 생활의 폭과 많은 관련을 갖게 된다. 자신의 내부를 촉발할 만한 어떤 대상과 소재가 만나면 그 순간 스파크처럼 충격의 불꽃이 일어난다. 그때의 충격을 일러 감동 또는 감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충격을 분석, 정리해서 주제로 삼으면 된다. 명난자(수필가, 예세이문학) 발행인 전문은 www.buddhanews.com에서 보세요

지정숙이 모금자라
자광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위치 및 시설개요

-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북정동 116
- ◆대상: 만 65세 이상, 노환스님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처하고자 하는 모든 분
- ◆정원: 24명~30명 내외
- ◆시설개요: 본 건물 → 방규도(약 7평) 24실(각실 인터넷 설치)
- 법당, 팔각정자
- 부대시설 → 제2물리치료실, 목욕탕, 이·미용실, 식당, 오락실
- ◆입방비부담: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 ◆연락처: 전화 031)759-5320 팩스 031)759-4209

보살 염불원의 특징

- >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날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염불과 기도정진으로 마음을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도처를 마련하였습니다.
- >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부처님 마을 자광원에서 경험한 통행하여 언어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노인을 위한 기도처입니다.
- > 외롭고 우울하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중 한분의 거동불편으로 의·식·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 > 자손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인력한 여생을 제공하며 임종 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 교부간의 갈등으로 고민하시는 분
- > 홀로계신 시아버님, 오시기가 어려우신 분 자광원에서 해결하여 드립니다.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

평등을 만들어 주면 공이 바뀝니다 명단 옥핵방

아무리 혈연구 노력해도 안되지만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 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옥핵이 사라지고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이 옵니다.

이것이 첫번입니다 **명단옥핵방 051)865-9933**

전도제 49재와 결연의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단옥핵방은 각 사찰, 암자, 관학관에만 있습니다.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옥핵이 바뀌면 좋은 운으로 바뀝니다. 재운은 운으로 바뀌면 재수없는 일들과 불화와 액운이 사라지고 새로운 앞길이 열리며 새로운 좋은 일이 있게 되고 새로운 관운, 명예, 재물이 옵니다.

이토피·비염·천식

완치 성공

유아기의 경우 안면과 팔 다리의 바깥쪽에 습진을 보이며, 성인의 경우 팔다리가 접히는 부위에 피부가 거칠어지는 태선화된 습진을 보입니다. 가려움증을 쉽게 느끼며, 사소한 자극에도 민감해지고, 땀 흡수나 통풍이 잘되지 않는 모직, 합성섬유, 실크 등의 직물로 된 내복은 환자에게 가려움증을 유발시키고, 털로 만든 안면이나 털 목도리 등도 쉽게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온도변화가 가려움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데, 갑자기 더운 방에 들어가거나, 목욕을 하게 되면 가려움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건강증진 운동본부 | 지정한의원 마고

진료

- 한의사 홍성인 원장님
- 한의사 오달석 원장님

장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80-29 마고한의원

문의 02)587-0001

* 아토피·비염·천식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